

統一情勢分析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2004. 4

이교덕(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상진(광운대학교 교수)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목적	2
1. 중국 신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2
2. 핵문제에 대한 협의	3
3. 중국의 경제지원 확보	4
III. 주요 의제와 협의 내용	6
1.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6
2. 북핵 6자회담 지속	7
3.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9
4. 통일정책 상호 지지	10
IV. 전망 및 고려사항	11
1. 북·중관계 개선을 전향적으로 인식	11
2. 3차 6자회담 준비	12
3. 남북한과 중국 3국간 경제협력 방안 강구	12
4. 대만과 비정치적 교류 확대	13

I. 문제제기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에 이어 3년여만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4.19-21), 후진타오(胡錦濤)와 장쩌민(江澤民)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와 여러 현안에 관해 협의하였음.
- 금번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덩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방중(4.13-15)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6월말 이전까지 3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제2차 6자회담에서의 합의가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 또한 김 위원장이 2000년 5월과 2001년 1월의 방중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예고하는 듯한 행보를 한 점에 비추어 이번의 중국방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심사였음.
-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03년 초 중국의 신지도부 출범 이후 북·중 최고지도부간 최초의 상견례였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사건이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 배경과 목적, 양국 지도부간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현안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목적

-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와 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핵문제 등 현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중국 신지도부와 협력관계 구축

- 2003년 3월 중국에서 제4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친민정치’(親民政治)를,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발전’(和平崛起) 외교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북·중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증대됨.
 - ‘평화적 발전’ 외교노선은 국제적 규범을 적극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우호친선의 대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¹⁾
- ‘평화적 발전’ 외교전략 하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핵문제를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양자대화가 아닌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는 바, 북한은 이러한 중국 신지도부의 외교정책 변화를 불안하게 생각해 왔음.
- 또한 2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미국에서 김정일 정권교체 논의가 제기되고 중국 일각에서도 김정일 이후의 북한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

1) Evan S. Medeiros and M. Taylor Fravel,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November/December 2003), pp. 22-35; 夏立平, “論中國實現和平崛起的國際戰略新理念,” 『國際問題研究』, 第6期 (2003. 11), pp. 31-35; “專家縱論中國和平崛起經略,” <http://chinanews.com.cn/n/2004-04-08/26/422976.html> (검색일: 2004. 4. 8).

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음.

- 더욱이 최근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1961) 중 자동군사개입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음.²⁾
- 이러한 상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후진타오와 원자바오(溫家寶) 등 중국의 신지도부와 우호관계를 구축·강화할 필요성을 인식케 한 것으로 생각됨.
 - 김 위원장은 방중 직후 후진타오 주석에 감사전문을 발송, “중국의 새 영도집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상봉은 우리들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여 조·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획기적 계기로 됐다”고 강조함.³⁾
 -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과거 두 차례 방문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번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의 거의 모든 최고위층 지도자 면담에 주력함.

2. 핵문제에 대한 협의

- 딕 체니 미국 부통령 방중 직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금번 정상회담은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되었음.

2)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奕,”
<http://www.iwep.org.cn/wep/200309/shenjiru.pdf> (검색일: 2004. 4. 23).
3) 「조선중앙통신」, 2004. 4. 22.

- 체니 부통령은 중국 방문시 중국 지도부에게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문하였음.
-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주선하고 북한 핵문제 중재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중국으로서도 핵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체면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음.
-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통보 받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중단할 경우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중국에게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완화를 설득해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었음.
- 중국이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확인하거나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것임.
 - 체니 부통령 방중시 미·중간 핵심 의제는 북핵문제와 대만문제였음.

3. 중국의 경제지원 확보

- 북핵문제로 미·일 등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지원국인 바, 김 위원장은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그 핵심 주장에 동의하는 대가로 중국의 경제지원을 유도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됨.
 -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과 남한 뿐임.

- 중국은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전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회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함.
 - 2002년에도 중국은 북한에 47만톤의 원유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 12월부터 미국이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중국의 원유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2002년 9월 신의주 경제특구 구상이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을 체포하는 등 중국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중단되었는 바, 북한은 경제개방의 확대를 위해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음.
 - 귀국길에 김 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의 관문인 톈진(天津)을 시찰한 것도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의 개방 준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Ⅲ. 주요 의제와 협의 내용

○ 금번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북·중관계 강화방안, 북핵문제, 경제협력문제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음.

1.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발전

○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차 당대회, 2002. 11)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중국 제4세대 지도부와의 유대관계를 구축하려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음.

○ 따라서 이번에 김 위원장은 장쩌민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을 비롯, 후진타오 당 총서기,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 정치협상회의 주석, 쩡칭홍(曾慶紅) 부주석 등 중국의 핵심 실세들 모두와 회담을 가졌으며, 황궈(黃菊) 상무 부총리, 우관정(吳官正) 정치국 상무위원, 리장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 뤼간(羅干) 정치국 상무위원 등과도 대화의 기회를 가짐.

- 중국 내 권력서열 9위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를 만났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임.
- 동시에 이는 중국이 김 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04년은 북한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5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북·중은 전통우호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후진타오는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라는 16자 방

침을 제시하면서, 북·중간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김 위원장도 북·중간 협력의 전통을 계승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확인함.
- 후 주석은 4월 19일 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다시 21일 오전 김 위원장의 숙소인 다오위타이(釣魚臺)를 방문, 송별 인사를 겸한 2차 정상회담을 가져 북·중간의 전통적인 친선·우호 관계를 과시함.

2. 북핵 6자회담 지속

- 북·중 정상회담에 북한에서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하였는 바, 이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핵문제였음을 시사함.
- 중국은 체니 미국 부통령 방중 시 중·미간 북핵문제 협의내용을 김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권유하였음.
 - 2차 6자회담 당시 거의 나올 뻔한 공동성명이 북한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무산되었음.
- 동시에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였음.
 - 후진타오 주석은 안보에 관한 북한의 “합리적 우려가 응당 중시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요구와 함께 북한의 대미 요구도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김 위원장에게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하고 회담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핵개발의 위험성을 역설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함으로써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음.
 - 중국은 최근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것(有所作爲)임을 밝혀 왔으나,⁴⁾ 중국의 적극적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전도가 불투명해짐으로써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함.
-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미국에게 대만의 독립을 저지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음.
 - 대만독립을 당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이 11대 총통에 재선(5월 20일 취임)됨으로써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⁵⁾ 중국은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미국의 협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음.

4) 楚樹龍, “全面建設小康時期的中國外交戰略,” 『中國外交』, 第11期 (2003. 11), p. 13에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음.

5) 천수이벤은 논란 끝에 총통 선거가 종료된 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대만 신헌법을 제정하고 2008년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Taiwan’s President Chen Sui-bian,”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3322-2004Mar29_3.html (검색일: 2004. 4. 5).

3.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 김 위원장은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경제무역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약속받았음.
- 중국은 북한의 경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게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중국은 중국 지도자의 방북 또는 북한 지도자 방중 시 북한측에 상당량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해 왔으며,⁶⁾ 북한에 대해 힘이 닿는 데까지 원조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쩡칭훙 국가 부주석과 회담 시 북한과 중국이 농업발전과 도시건설 등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음.⁷⁾
 -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경제개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김 위원장 귀국 이후 북한이 중국의 지원과 협조 하에 경제개혁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중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박봉주 총리와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중국의 시범 농촌마을 한춘허(韓村河)를 시찰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텐진을 방문한 것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6)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 방북 시 중국은 북한에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2003년 10월 우방귀 방북 시에는 인민폐 2억원에 상당하는 유리공장을 건설해 주기로 하였음.

7) 「조선중앙통신」, 2004. 4. 22.

4. 통일정책 상호 지지

- 중국은 북한의 자주평화통일 주장과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 중국은 한반도가 자주적·평화적·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음.
 -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중국에 경쟁적인 국가가 통일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임.
 -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중국의 대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때문임.
 -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이유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통일과정이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이 통일과업을 조기에 완수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이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이유는 대만 내 독립 분위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중국측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대만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은 대만카드의 효용성을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과거 북한은 대만 핵폐기물 반입, 대만의 아시안게임 유치 지지 등의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의 한국 접근정책을 견제하려 한 사례가 있었음.

IV. 전망 및 고려사항

1. 북·중관계 개선을 전향적으로 인식

- 장기적으로 보면 북·중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보다는 국익 우선의 일반적 관계로 전환될 것임.
 -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안정하에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문기술관료(technocrat)들로서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지지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주변환경의 안정유지 확보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임.
- 그러나 당분간은 북한측에서의 정치·경제적 필요성과 중국측의 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필요성 때문에 특수한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임.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북·중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큼.
- 따라서 북·중관계 개선을 우려하거나 불안해 하기보다는 현실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북·중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김 위원장이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전통은 북·중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이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2. 3차 6자회담 준비

- 4월 19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인내성과 신축성을 계속 발휘하여 6자회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회담의 진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여 6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6자회담 실무회의와 3차 6자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 발언내용을 원칙적 입장의 재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6자회담의 ‘진전’을 강조했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회담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핵문제 해결에 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이 북·미 양자간 해결이었는데,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한 기여를 밝힌 것은 중국을 배려한 것임.
 - ‘인내성’과 ‘신축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중국측에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6자회담 준비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3. 남북한과 중국 3국간 경제협력 방안 강구

- 이번 방중에서 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북한의 경제회복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은 남북한과 중국 3국간의 현실적인 경제협력·개발방안을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북한이 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북한경제 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이라면, 한국은 TKR과 TCR 연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중요성 증대 때문에서도 한·중간 도로·철도 연결은 필요함.

4. 대만과 비정치적 교류 확대

- 대만은 한국의 5대 교역 상대이며 한국은 대만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1992년 8월 단교 이후 한·대만간 접촉과 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황금노선(연간 4,000억원 상당)인 서울-타이베이간 국적기 취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대만과 정치·외교관계를 복원하기는 어려우나 대만과 비정치적 관계는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